

논문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독교 개혁신교회(RCJ)의 형성과 신학적 특질을 고찰하여 그 함의를 정리하는 데 있다. RCJ는 일본 개신교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교단이다. 이들은 1946년 창립 당시부터 전쟁 중 국가주의와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했던 과거를 철저히 회개하며 출발했다. 이러한 역사적 죄책 고백은 이후 평화 헌법 수호, 천황제 비판, 야스쿠니 신사 국유화 반대 등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에 기초한 선명한 사회적 실천과 정교분리 운동으로 이어졌다. 또한 RCJ는 신학적 순수성을 유지하고자 고베 개혁파 신학교를 세워 소수 정예 목회자를 양성하고, 화란 신칼빈주의 세계관을 수용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문화 변혁을 도모했다. 비록 현재 고령화와 복음화 정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으나, 본 연구는 척박한 일본 토양에서 성경에 충실한 정교한 신학이 어떻게 생존하고 공적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 분석하여 한국 교회에 중대한 함의를 제공하고자 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일본 개신교 신학 연구라는 거대 흐름속에서 RCJ에 대한 일본그리스도개혁신교회 역사자료편찬위원회가 1995년에 발간한 『일본기독교 개혁신교회사: 도상에 있는 교회(日本基督改革派教会史: 途上にある教会)』를 자세히 파악해 내용을 정리하고 한다. 본서는 RCJ 50주년의 역사를 회고해 기술한 역사서로 총 4부, 제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제어: 일본기독교개혁신교회사, 도상에 있는 교회, 고베개혁파신학교, 칼뱅신학,, 일본기독교 교단, 한국 개혁주의 신학

I. 서론

본 연구의 목적은 일본 기독교 개혁신교회(Reformed Church in Japan, 이하 RCJ)의 형성과 신학적 특징을 검토하여 그 함의를 정리하는 데에 있다. RCJ는 일본 개신교에서 가장 보수적이고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하는 교단 중 하나이다. 일본 내에서는 비교적 소수 교단에 속하지만, 그 신학적 정체성과 역사적 순수성은 일본 기독교사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RCJ는 1946년 창립 당시부터 전쟁 중 신사참배 강요에 굴복했던 과거를 회개하며 출발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이후 일본 사회에서 평화 헌법 수호, 천황제 비판, 야스쿠니 신사 참배 반대 등 사회적 실천으로 이어졌다. 이들은 "그리스도만이 교회의 머리"라는 고백 아래 국가 권력이 신앙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에 매우 민감하게 대응하였다. 또한 RCJ는 신학적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베 개혁파 신학교(Kobe Reformed Theological Seminary)를 세워세워 소수 정예 목회자를 양성하며, 헬라어·히브리어 주해와 고전 신학 교육을 실시한 것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RCJ는 현재 일본 사회전체의 고령화와 복음화를 정체라는 위기에 직면해 있다. 다음 세대로의 신앙 전수 또한 최우선 과제이다. 그리고 교리적 엄격함이 대중과의 괴리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 속에 개혁주의를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가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다. 또한 숫자는 작지만, "성경에 충실하고 신학적으로 정교한" 기독교가 일본이라는 척박한 토양에서 어떻게 생존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본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리고 복음주의(Evangelicalism) 신학을 추구하는 일본복음동맹(Japan Evangelical Association, JEA) 회원 교단으로 활동하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면 이러한 RCJ에 대한 조사가 우리나라의 신학 및 한 일교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이나 그 함의는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나라에는 일본의 기독교사 및 교회사에 관한 다수의 저서 또는 번역서가 출판되어 있다. 그러나 일본 개혁신교회(RCJ) 그 자체의 신학이나 형성과정이나 실태, 역사를 다룬 연구는 많지 않았다. 특히 한국은 일본과 같이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의 영향으로 개혁주의 성향을 지닌 예장 합동, 합신, 고신 등 장로 교단이 주류를 형성하고 일본과 다양한 교류를 하면서도, 일본개혁신교회(RCJ) 그 자치의 성과나 신학에 대해서는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못했다. 본 연구를 일본 개신교 신학 연구라는 거대 담론속에서 RCJ에 대한 조사를 하고자 한다. 그리고 제 1단계 연구방법으로 문헌 조사를 하며, 일본그리스도개혁신교회 역사자료편찬위원회에 의해 1995년에 발간된, 『일본기독교 개혁신교회사: 도상에 있는 교회(日本基督改革派教会史: 途上にある教会)』의 내용을 자세히 파악해 정리하고 한다. 본서는 RCJ의 50주년의 역사 회고해 기술한 역사서, 총 4부, 20개장 및 약연표·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II. 일본 개혁신교회의 형성의 배경과 형성 과정

먼저 일본그리스도개혁신교회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본에 개신교 복음이 처음 들어온 배경과 1945년까지 전시중 형성된 일본의 신학에 대한 사전 지식이 필요하다.

2.1 일본 기독교의 초기 지형 (메이지~다이쇼 시대)

일본의 개신교는 1859년 개항 이후, 미국 북장로교회와 남장로교회, 네덜란드 개혁신교회 등의 선교사들이 입국했다. 이들은 1877년 교파를 초월한 연합 장로교회 체제인 ‘일본 기독교회((Church of Christ in Japan, 日本基督教会, 약칭 日基)’를 형성했다. 초기 칼뱅주의 장로교 제도를 바탕으로 한 개혁신주의 신앙이 출발의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며 일본 기독교회(日基) 내부에 서구 근대 자유주의 신학과 고등비평이 유입되기 시작했고, 교단의 신학적 색채는 점차 넓고 느슨한(Broad Church) 형태로 변질되었다.

2.2 일본 기독교단의 성립과 강제 통합

그리고 1930년대에 접어들며 일본은 만주사변과 중일전쟁을 일으키며 급격한 군국주의 체제로 돌입했다. 이 시기 국가 권력은 종교를 통제하고 천황제 이데올로기 아래 종속시키려는 압박을 가했다. 일본 정부는 1939년 모든 종교단체를 국가의 허가제 아래 두는 ‘종교단체법(宗教団体法)’을 제정하였다. 국가의 목적은 많은 기독교 교파를 관리하기 쉽게 하나의 단체로 묶고, 전시 동원 체제에 협력하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1941년 6월, 장로교, 감리교, 조합교회(회중교회), 침례교 등 일본 내 거의 모든 개신교파가 강제로 통합되어 ‘일본 기독교단(日本基督教団, 약칭 교단)’으로 출범하였다. 이 통합은 신학적 일치나 교리적 소통에 의한 것이 아니라, 국가의 권력에 의한 외재적 합병이었다. 이 과정에서 장로교의 정체성을 지니고 있던 구 ‘일본 그리스도교회(日基)’역시 해체되어 교단의 ‘제1부(第一部)’로 흡수되었다. 일본 개신교 고백교회 역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신학적 암흑기의 시작된 것이다(이선복, 2025.12).

일본 기독교단 내부로 들어간 교회들은 국가의 요구에 따라 무서운 속도로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렸다. 창립 이전의 이 시기는 훗날 개혁신파 창립자들이 가장 처절하게 반성하고 분노했던 ‘신학적 배교’의 시기였다. 교단 지도부는 신사참배가 종교적 행위가 아니라 국가의 시민적 의례라는 정부의 논리를 그대로 수용했다.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집단으로 신사에 가 일본의 태양신인 ‘아미테라스 오미카미’와 전쟁 영웅에게 절을 했다. 교회 내부에 천황 사진을 걸어두거나, 예배 시작 전 동방요배(천황이 있는 도쿄 황거를 향해 절하는 것)를 드리는 행위도

만연했다. 또한 신학이 변질되었다. 구약성경은 유대인의 역사이자 천황의 신성함을 모독한다는 이유로 설교에서 배제되거나 경시되었다. 복음은 일본의 전통 사상인 '팔굉일우(八紘一宇, 온 세상이 한 집안, 즉 천황의 지배 아래 있다는 사상)'를 정당화하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Lordship) 대신, '천황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라는 이단적 혼합주의 신학이 교단을 지배했다.

그러나 모든 교회가 군국주의에 굴복한 것은 아니었다. 교단의 삼엄한 감시와 치안 유지를 위한 비밀경찰의 압박 속에서도, 남장로교회의 경우 청교도적 선교 전통에 따라 신학적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 훗날 개혁파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하는 오카다 미노루 목사와 도키타 마사오 목사 등은 전시 상황 속에서도 칼뱅의 『기독교 강요』를 탐독하며 교회의 참된 본질을 고뇌했다. 이들은 교단이 행하는 국가 우상숭배 행위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침해하는 무서운 죄악임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당장 전면적인 거부 운동을 펼치다가는 교회가 폐쇄되고 투옥되는 상황이었기에 겉으로는 숨을 죽이고 있었으나, 이들의 마음속에는 "전쟁이 끝나면 반드시 이 혼합주의 세력과 결별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는 순수한 개혁교회를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룩한 열망이 잉태되고 있었다. 이 시기의 고뇌와 영적 고독이 바로 개혁파 교회를 탄생시킨 진짜 요람(Cradle)이었다.

2.3 교단 분립과 '일본 기독교 개혁파교회'의 탄생 (194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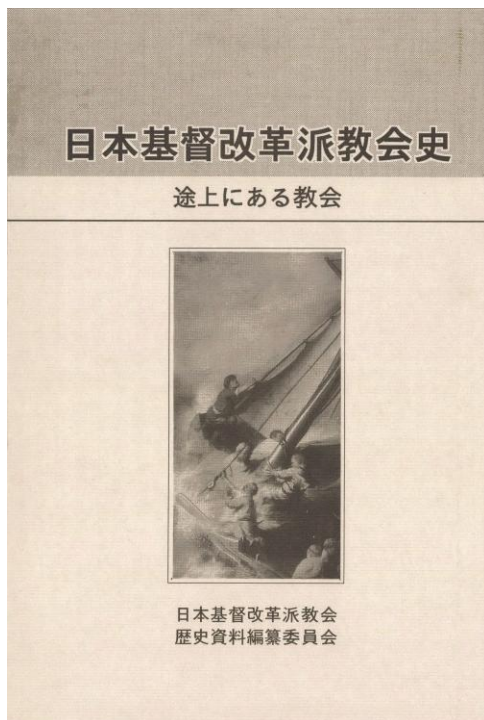
1945년 8월 15일, 일본은 연합국에 항복을 선언하였다. 군국주의 죄사슬이 풀리고, 종교의 자유가 찾아왔다.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교회가 철저한 참회와 신학적 쇄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전후 직후의 일본 기독교단은 전시 중에 있었던 우상숭배의 과오와 침략 협력 행위에 대해 참된 신학적 회개를 표명하지 않았다. 오히려 연합국 군정(GHQ)의 민주화 물결에 편승하여, 전쟁기 체제를 이끌던 지도부들이 그대로 자리를 유지하며 교단의 기득권을 지키기에 급급했다. 교단은 "시대를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으로 일관했다.

이러한 모습에 정통 개혁주의 목회자들은 절망과 함께 역사적 결단을 내렸다. 참된 회개가 없는 교단 안에 머무는 것은 죄악에 계속 동참하는 것이라 판단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은 신학적 논리로 단을 탈퇴하기로 하였다. 첫째, 교단은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을 부정하고 우상과 타협한 배교적 집단이다. 둘째, 교단은 장로교의 정당한 신앙고백(웨스트민스터 등)이 없는 신학적 회색지대(혼합주의)이다. 그리고 참된 성례와 바른 말씀 선포가 이루어지는 '거룩하고 순결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교단 밖으로 나와 거룩한 분리를 단행해야 한다

생각하였다.

IV. 일본 기독교 개혁신파교회의 신학적 특징

본 연구는 일본기독교개혁신파교회 역사자료편찬위원회에 의해 1995년에 발간된. 『일본기독교개혁신파교회사』의 내용을 자세히 분석 검토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위 교회사는 총4부, 제20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제1부: 창립 이전부터 창립으로 (제1장 ~ 제5장)

3-1-1 제1장 일본에서의 개혁신파교회 형성

19세기 후반 일본 선교에 착수한 미국 남장로교회(PCUS) 선교사들은 성경적 보수주의, 칼뱅주의 신학,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을 기반으로 삼고 있었다. 이들은 당시 주류였던 '일본기독교교회(구 일기)' 내부의 신학적 포용주의와 자유주의 흐름에 타협하지 않는 칼뱅주의적 경건을 심어주었으며, 이는 훗날 개혁신파 교회 창립의 자양분이 되었다. 그리고 존 칼뱅의 신학에 맥을 두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유신론적 인생관·세계관'에 눈을 뜬 목회자가 나타났다. 특히 오카다 미노루 목사를 비롯한 정통 개혁신파 신학자들은 정통

교리학의 체계화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 연구를 통해 세속화에 맞설 신학적 무기를 제련했다. 그러나 1941년 일본은 종교 통제를 위해 모든 개신교파를 강제로 하나의 조직인 '일본기독교단'으로 통합했다. 신학적 정체성을 상실한 「신학 없는 교회」로 전락하였다. 그리고 개혁신파 사역자들은 이 어두운 시기 소그룹으로 신조를 공부하며 새로운 교회 창립의 에너지를 축적했다(1장).

3-1-2 제2장 창립을 향한 태동

전시하 강제 통합된 일본기독교단은 국가 권력의 굴복하여 신사참배를 수용하고, 예배당 내 천황 숭배 장치(가미타나)를 설치하는 등 배교를 범했다. 신학적 뼈대가 없는 교회의 참혹한 실상에 교단 지도자들은 '정통 갈뱅주의 신학의 회복'과 '명확한 신앙고백의 확립'이 필수적임을 느꼈다. 그리고 제54회 정기대회를 통해, 1945년 8월 패전 후 종교의 자유가 찾아오자 과거 장로교 전통을 가진 지도자들이 모여 진로를 논의했다. 관제 교단인 일본기독교단 내부에 그대로 잔류하자는 주장과 달리, 오카다 미노루 목사 등 철저한 개혁신파 인물들은 신학적으로 오염된 교단과 결별하고 완전히 독립된 순수한 교회를 시작하기로 결단했다.

3-1-2 제3장 일본그리스도개혁신파교회의 창립

그리고 1946년 4월, 개혁신파의 신앙의 순수성을 갈망하던 사역자들과 신도 대표들이 모여 역사적인 '일본그리스도개혁신파교회 창립대회'를 개최하고,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공식 신조로 채택했다. 교단 탈퇴에 대해 주류 진영은 이들의 행보를 분파주의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창립자들은 진정한 교회의 일치가 외형적 조직이 아닌 '진리(신앙고백)의 일치'에 있다고 단호히 맞섰다. 우상과 타협하고 가해자적 책임을 회개하지 않는 교단에서 나오는 것은 교회의 참된 표지를 회복하기 위한 '영적 출애굽'이었다.

3-1-4 제4장 『창립선언』의 사상과 신앙

개혁신파교회의 『창립선언』은 국가 권력에 무릎 꿇었던 교회의 죄책에 대한 뼈아픈 반성에서 출발했다. 모든 삶의 영역에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는 '갈뱅주의 세계관'을 천명하고, 교회는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는 개혁신파적 정교분리 사상을 명확히 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뒤로 숨어 현실을 도피하는 나약함을 거부하고, 바른 진리 고백, 성례 집행, 권징을 시행하는 역사적 실체로서의 '보이는 교회'의 순결성을 강조했다. 또한, "교회의 머리는 오직 그리스도뿐"이라는 선언 아래 당회, 노회, 대회의 대의제 기구를 통해 다스려지는 장로주의 정치를 명시했다.

3-1-5 제5장 地域교회 형성의 발자취

창립 선언의 정신은 패전 직후의 빈곤 속에서도 구체적인 지역교회의 형태로 구현되었다. 도교를 중심으로 신학적 문서 운동이 활발했으며, 칼뱅주의에 매료된 지식인·청년층이 대거 유입되었다. 불교 색채가 강한 나고야 등 중부 지역에서 가정방문과 일대일 성경 공부로 내실을 다졌다. 시코쿠: 미국 남장로교회의 선교 유산이 남아있던 곳으로, 성도들이 적극적으로 교단을 탈퇴하여 개혁신교회로 전환하는 부흥 운동이 일어났다. 고베는 역사적 장로교의 중심지이자 고베개혁신학교의 발족과 연계되어 학문과 목회의 하모니를 이루며 교단의 인적 인프라 거점이 되었다.

3-2 제2부: 확립과 전개 (제6장 ~ 제11장)

4-2-1 제6장 개혁신교회의 신학적 싸움

개혁신교회는 전후 독일 자유주의 신학과 감상주의적 인도주의가 범람하는 환경에 맞서, 오카다 미노루 목사를 필두로 예정론, 성경의 유기적 영감설 등 정통 개혁주의 교리학을 체계화했다. 교단 초창기 기관지인 『개혁신세계』를 통해 바르트주의의 도전에 맞서 '오직 성경'의 원리를 사수했고, 종합 기관지 『리폼드』를 통해 올바른 예배 모범, 장로교 정치 질서, 선한 생활의 윤리 등 실천신학적 투쟁을 전개하여 목회자와 평신도를 무장시켰다.

PDF

3-2-2 제7장 고베개혁신학교의 발족

개혁신교회는 바른 목회자 양성을 위해 1946년 10월, 재정과 교사 없이 오카다 미노루 목사 등 창립 지도자들이 직접 나서는 눈물겨운 노력으로 고베개혁신학교를 개교했다. 교육방법은 성경 원어 중심의 철저한 주해 능력과 조직신학 훈련을 시행했다. 동시에 기숙사 생활을 통한 경건 연단과 주말마다 지역 교회 및 전도소로 파송되어 주일학교와 노방 전도를 이끄는 현장 중심의 실천 교육을 결합했다.

3-2-3 제8장 헌법을 정비하다

그리고 교회의 뼈대를 세우기 위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정밀하게 일본어로 번역하여 교단의 헌법적 신조로 채택했다. 성경의 원리로부터 흘러나오는 교회 규칙(정치, 예배 모범, 권징 조례)을 초안하여 삼심제 구조(당회, 노회, 대회)와 목사·장로의 직무를 법제화했다. 이는 관료주의적 관제 교단에 대한 반정립으로서 교회의 영적 자유를 지키는 성벽이 되었다.

3-2-3 제9장 미션協力の 길

개혁파교회는 교회 중심적 선교 협력 방법으로, 미국 남장로교회(PCUS), 정통장로교회(OPC), 기독교개혁교회(CRC) 등 해외 선교사들과 재회·합류했다. 이때 선교사가 교회를 지배 하던 과거 방식을 배격하고, 모든 선교 활동이 일본 개혁파 교회의 치리회 질서 아래 통제된다는 "교회 중심적 선교 협력의 대원칙"을 확립했다. 그리고 선교부의 재정 지원을 통해 패전 패허 속에 예배당을 건축하여 전도소 설립을 가속화했고, 학문적 깊이를 갖춘 선교사들을 신학교 교수로 초빙하여 장학 프로그램과 문서 출판 사역을 다변화했다.

3-2-4 제10장 〈칼뱅주의〉의 전개

개혁파교회는 세계관의 확장으로,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네오-칼뱅주의를 수용하여, 세상으로부터 도피하는 대신 학문, 문화, 사회 전반을 기독교적 원리로 변혁해야 한다는 일반 은총 사상을 확립했다. 그리고 "학문의 완성"을 목표로 모든 학문의 기초가 하나님 경외에 있음을 가르치는 '쌍혜(소케이)학원'을 설립하여 세속 교육 시스템 속에서 고투했다. 또한, 초교파 단체인 '일본칼뱅주의자협회'를 통해 『기독교 강요』 등 고전을 번역·소개하고 당대의 마르크스주의나 세속적 실존주의 사상을 날카롭게 비판했다.

3-2-4 제11장 諸교파와의 만남과 교류

장로교 전통과의 관계: 뒤늦게(1951년) 교단을 탈퇴하여 과거의 이름을 복원한 '일본기독교회(신 일기)' 진영과 만나, 역사적 뿌리를 공유하면서도 신학적 엄밀성과 신조 채택의 문제를 두고 정당한 신학적 비평과 대화를 이어갔다. 그리고 국내외 기관과의 연대에 대해 포용주의적 에큐메니칼(WCC) 운동의 무분별한 연대는 경계하되, 성경 보수주의를 공유하는 보수 복음주의 진영과는 연대했다. 다만 문화와 사회를 부인하는 근본주의의 고립주의와 반지성주의와는 거리를 두었다. 나아가 미국, 네덜란드, 한국 등 세계의 고백적 개혁교단들과 자매결연을 맺어 우주적 공교회의 일원으로 자리매김했다.

3-3 제3부: 침체와 타개 (제12장 ~ 제15장)

3-3-1 제12장 난항을 겪는 개혁파 노선 : 창립 20주년을 향하는 교회

개혁파교회는 1950년대 후반~1960년대 중반, 초기의 치열했던 정신은 점차 정통주의적 타성과 행정 맹신주의로 고착화되고 영적 구심력이 약화되는 내적 침체를 겪었다. 신중하게 정비했던 교회 규칙들이 서로를 정죄하는 율법주의적 잣대로 오용되었고, 수많은 개척 전도소

들이 자립하지 못하는 아픔이 있었다. 신학교 교육 역시 지나치게 스콜라주의화 되어 실제 목회 현장과 괴리된다는 비판 속에 거센 개혁 논쟁이 벌어졌다.

3-3-2 제13장 노회(중회) 형성의 모색과 전개

교단은 당면한 침체를 극복하기 위해 중앙 집중적 구조에서 벗어나 각 지역 노회(서부, 동부, 시코쿠, 중부)의 자율성과 책임을 강화하는 구조를 모색하였다. 지역별 사정에 맞는 신속한 선교적 결정을 유도하며 정체 국면을 돌파하고자 했다.

3-3-3 제14장 창립 20주년의 개혁파교회

1966년 창립 20주년 대회에서 교단은 자신들이 올바른 교리를 가졌다는 독선(정통주의의 덫)에 빠져 복음을 듣지 못하는 세상을 외면한 종파주의적 과오를 뼈아프게 직시하고 회개했다. 20주년 기념 선언을 통해 지상의 그 어떤 교회도 완성된 형태로 존재할 수 없으며, 하나님 나라를 향해 나아가는 "길 위(途上)에 있는 미완성의 교회"일 뿐임을 선포했다.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재확인하며 율법주의적 독선에서 벗어나 선교적 야성을 재점화했다.

3-3-4 제15장 개혁파 노선의 전개

교단 상임위원회는 과거의 타성을 깨고 인구 급증 지역인 도쿄·오사카의 베드타운을 타깃으로 하는 '대도시 개척 전도 노선'과 평신도 교육 콘텐츠 개발을 모색하였다. 전국 교회의 재정을 공공으로 거두어 미자립 교회 목회자의 최소 생활을 보장하는 '교역자 생활보장제도'를 구체화하여 상호 책임을 실천했다. 그리고 동부노회는 기관지 『교제(마지와리)』를 창간하여 평신도들의 삶의 간증과 소장파 사역자들의 제언을 소통시킴으로써 유기적인 생명력을 성도들의 일상에 주입했다.

3-4 제4부: 교회 형성의 과제를 쫓아서 (제16장 ~ 제20장)

3-4-1 제16장 개혁파교회의 전도(선교)

개혁파교회는 인간의 감정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에 기초한 전도, 일회성 이벤트가 아닌 지역 교회를 세우는 '교회 중심적 전도' 원칙을 고수했다. 모교회-자교회 방식으로 대도시 신도시를 공략했으며, 라디오 방송 선교를 개척해 척박한 일본의 토양을 끌어 올리기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창립 20주년을 지나며 원조를 '받는 교회'에서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주는 교회'로 대전환을 이루었다. 대만, 한국, 동남아 등 세계 열방에 고베개혁파신학교 출신

정에 사역자들을 파송하여 현지 문화와 언어를 존중하는 견고한 장로교 공교회를 세워나갔다.

3-4-2 제17장 「옛 일본으로의 회귀」에 저항하여

개척파 교회는 신사와 야스쿠니 투쟁에 대해 전후에도 지방 사회에서 마츠리(축제)나 신사 유지비를 공공의 명목으로 강제 징수하는 압박이 지속되자 이를 우상숭배로 규정하고 단호히 거부했다. 1960~70년대 자민당 보수 정권이 군국주의 종교 체제를 부활시키기 위해 발의한 '야스쿠니 신사 국유화 법안'의 독소 조항(정교분리 파괴, 가해자적 역사 은폐)을 지적하고 서명 운동과 항의 시위 등 '신앙의 싸움'을 전개했다. 그리고 이 투쟁의 결과물로 1976년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의 선언』을 채택하여, 국가 권력이 신의 영역을 침범하고 양심을 억압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국가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척주의 저항권'을 선언했다.

3-4-3 제18장 개척파 신도의 생활사

그리고 개척파교회 성도들은 모든 삶의 영역에 임하는 그리스도의 주권을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서(Coram Deo)'의 삶을 일상에서 치열하게 실천했다. 토요일 저녁부터 준비하여 세속적 업무를 중단하는 철저한 '주일 성수'를 사수했고, '언약 사상'에 기초하여 매일 아침저녁 가장을 중심으로 가정예배를 드렸으며 자녀들에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문답을 직접 가르쳤다. 직장에서는 접대 문화와 우상숭배적 기업 의례를 거부하여 불이익과 고립을 겪으면서도 '직업소명설'을 따라 정직과 성실을 고수했다. 집안의 불교식·신도식 신단(붓단, 카미다나)을 철거해 문중에서 파문당하는 고독을 감내했으며, 불교식 장례의 분향을 거부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기독교적 장례 문화를 정착시켰다. 평화헌법 수호와 사회적 소수자(재일 한국인, 부라쿠민 등) 차별 철폐 운동에도 신앙적 양심을 가지고 참여했다.

3-4-4 제19장 神学史を刻む

개척파교회는 신학적 자립으로 창립 초기 수용한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의 신학적 뼈대를 바탕으로 연구를 거듭한 끝에, 창립 30주년(1977년)을 기념하여 고유의 『일본 그리스도 개척파 교회 신앙고백』을 제정했다. 이 고백서는 서구 사상의 단순 모방을 넘어 천황제 국가주의의 상흔과 물질만능주의라는 일본의 특수한 역사적·영적 토양 위에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교회의 영적 자율성을 명확히 선언한 위대한 정점이었다. 그리고 사상적 쟁점으로 도키타 마사오 등의 성경 무오성 변증, 오노무라 린조가 도입한 아브라함 카이퍼의 '문화 명령' 신학을 결합했다. 복음을 일본 전통 종교 개념과 타협적으로 융합하려는 '토착화 신학'을 복음의 변질로 규정하며 비판했고,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문화를 변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사수했다.

3-4-5 제20장 창립 30주년의 개혁신교회

일본 개혁신교회는 5명의 목회자로 출범해 30주년을 맞이하여 일본 전역을 동부, 중부, 서부 노회 체제로 촘촘히 연결하는 전국적 교단으로 안착했다. 고베개혁신학교 역시 일본인 교수진을 주축으로 자립적인 학문 공동체로 성장했다. 그리고 사회적 책임의 수행과 글로벌 연대를 위해, 야스쿠니 신사 국영화 반대, 평화헌법 수호 운동을 지속하는 한편, 과거 일본 제국주의의 피해를 입었던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의 교회와 소통하며 "역사적 죄를 철저히 고백하고 청산하지 않는 복음 전파는 위선"이라는 참된 회개를 구체화했다. 세계적인 정통 개혁주의 단체들과 대등하게 대화하는 글로벌 개혁신교회 가족의 일원으로 당당히 진입했다.

결론적으로 개혁신교회(RCJ)는 어려운 광야의 길을 걸어오며 일본에 '고백하는 교회'의 정체성을 심고 신학적 자립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여 왔다. 그러나 일본은 현대 사회의 극단적 물질주의, 다원주의 문화, 일본 교회 전체를 위협하는 인구 절벽과 초고령화, 차세대 신앙 전수의 위기라는 냉혹한 현실도 동시에 직면해 있다. 개혁신교회의 미래 비전은 빛나는 유산과 정교한 제도조차 우상화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날마다 자기를 갱신하는 "항상 개혁되는 교회(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의 정신을 붙들고자 한다. 숫자의 적음에 낙심하지 않고, 아시아의 고통에 공감하며 세계 교회를 향해 복음과 평화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룩한 소수자(Minority)로서 사명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 그리고 일본 개혁신교회는 패전후 풍파 속에서 순수한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 보존하신 주님의 전적인 은혜에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께만 모든 영광(Soli Deo Gloria)을 돌리는 고백의 찬양으로 막을 내린다.

IV. 일본의 개혁신교회 신학의 특징과 한국의 개혁주의 연구

4.1 일본 개혁신교회의 신학적 특징

그러면 『일본그리스도개혁신교회사 — 도상(途上)에 있는 교회』를 통해 본 일본 개혁신교회(RCJ) 신학의 특징은 무엇인가? 이는 다음과 같다.

4-1-1 신학적 배교에 대한 참회와 ‘오직 성경’으로의 복귀

일본 개혁신학의 가장 근원적인 출발점은 ‘신학적 순수성의 회복’과 배교에 대한 처절한 회개에 있다. 태평양 전쟁 시기 일본의 개신교회들은 군국주의 정권의 압박으로 인해 ‘일본기독교단’으로 강제 통합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천황제 이데올로기와 국가 신도의 우상 숭배(신사참배, 동방요배 등)를 기독교 교리와 혼합하는 신학적 암흑기를 겪었다. 1946년 개혁신교회 창립자들은 이러한 신학적 타협과 배교 행위를 이유로 참회하며 교단을 탈퇴하였다. 이들은 인간의 이성이나 국가 권력보다 기록된 계시인 성경이 최고의 권위를 가짐을 선포하는 ‘오직 성경(Sola Scriptura)’의 원칙을 확고히 세우고, 정통 개혁신학의 신학을 일본 땅에 정착시키는 것을 제1의 사명으로 삼았다.

4-1-2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기초한 선명한 ‘고백교회’ 전통

RCJ 신학은 신학적 회색지대에 놓여 있던 일본 기독교계 안에서 ‘고백하는 교회(Confessing Church)’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표방했다. 창립 초기부터 정통 장로교-개혁신교회 전통의 최고 봉우리에 있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대소요리문답을 교단의 신학적 표준으로 채택했다. 오카다 미노루 목사를 비롯한 신학자들은 이를 정밀하게 일본어로 축자 번역하여 교회의 단단한 사상적 뼈대로 삼았다. 또한 독자적 신앙고백서로 서구 신학의 단순한 수입에 그치지 않고, 창립 30주년(1977년)을 맞이하여 다원주의와 물질주의가 급부상하는 현대 일본 상황에 맞춘 고유의 『일본 그리스도개혁신교회 신앙고백』을 제정하여 신학적 자립을 이룩했다.

4-1-3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Headship)과 저항권 신학

개혁신학의 핵심 원리인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과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성’은 국가주의에 맞서 교회의 영적 자유를 수호하는 강력한 변증학적 무기가 되었다. 교회 규칙과 헌법은 한 사람의 독재나 세속 권력이 교회를 임의로 지배하지 못하도록 장로주의 대의 정치 구조로 성문화되었다. 특히 1960~70년대 정치권의 군국주의 복고 조류와 ‘아스쿠니 신사 국유화 법안’에 맞서 전개한 신앙의 투쟁은 1976년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의 선언』이라는 위대한 결실을 낳았다. 이 선언은 국가 권력이 신의 영역을 침범할 때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개혁신주의적 저항권을 명문화한 정치신학적 정수로 평가할 수 있다.

PDF

4-1-4 포괄적 세계관으로서의 칼뱅주의와 문화 변혁주의

RCJ 신학은 개인의 내면적 평안이나 사사화(Private)된 내세 구원에만 갇히는 것을 강력히

경계했다. 미국의 정통 개혁주의 신학뿐만 아니라 네덜란드의 아브라함 카이퍼와 헤르만 바빙크의 신칼빈주의(Neo-Calvinism) 영향을 받았다. 이들은 ‘일반 은총’과 ‘영역 주권’ 사상을 바탕으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학문 등 인간 삶의 모든 영역에 그리스도의 왕권이 임해야 한다는 ‘유신론적 인생관·세계관’을 전개했다. 이러한 사상은 기독교 교육 기관인 ‘쌍혜(소케이)학원’의 설립과 초교파적 문화 운동 단체인 ‘일본칼뱅주의자협회’의 사상적 변증 활동을 통해 구체적인 문화 명령의 실천으로 이어졌다.

4-1-5 토착화 신학과 무분별한 연합(에큐메니칼)에 대한 경계

기독교 인구가 1% 미만인 척박한 비기독교적 토양 위에서, RCJ 신학은 타협 없는 정통주의 노선을 고수했다. 문화적 동화 거부로, 당시 일본 교계 일각에서 유행하던 일본 전통 종교 개념과의 타협적 융합(토착화 신학)을 ‘복음의 변질’로 규정하여 배격했다. 복음이 문화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의 능력으로 일본 문화를 변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또한 고백적 연대 추구로 진리의 선명한 고백이 생략된 체제 중심의 무조건적인 연합 운동(WCC 에큐메니칼 운동)에는 비판적 선을 그었으며, 대신 세계의 신실한 고백적 정통 개혁교회들과의 우주적 공교회적 연대를 공고히 했다.

즉 일본 개혁파 신학은 자신들의 전통이나 신조, 제도를 우상화하는 교조적 폐쇄성을 경계하고, 1966년 창립 20주년 선언을 통해 천명된 ‘도상(途上)에 있는 교회’라는 고백은 지상의 교회가 완성된 고체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여정을 이어가는 여행자일 뿐이라는 신학적 겸손의 자세를 보였다. 이는 “개혁된 교회는 끊임없이 개혁되어야 한다(Ecclesia re-formata, semper reformanda)”는 역동적 원리를 바탕으로, 시대의 도전 앞에 변하지 않는 복음의 본질을 파수하며 날마다 자신을 갱신하려는 살아있는 역사 의식의 발로로 평가할 수 있다.

4.2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특징과 연구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혁파교회에 대해 조사하며 이들이 갖는 의미와 한국에 미치는 영향이나 시사점을 파악하기 위해 추가 조사를 하였다. 한국에 있어서 개혁주의 신앙이란 무엇일까? 그리고 다음 국내 문헌을 살펴보았다.

정정숙(1979),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기독교문서선교회
이근삼(1985),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기독교문서선교회

박용규 번역(1992),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도서출판 엠마오
 김재성(2004), 개혁신학의 전망: 현대 칼빈주의, 그 독특성과 공헌들, 이레서원.
 이상규(2007),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고신대학교 출판부
 이근삼전집 편찬위원회(2007), 개혁주의 신학과 한국교회, 생명의 양식
 안명준(2009),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기쁜 날
 양낙홍(2010), 개혁주의 사회윤리와 한국교회, 생명의 양식
 송영목(2026) 편역, 교회의 품위와 질서: 개혁파 교회 질서, 고신 언론사

아울러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역사적 형성, 신학적 분화, 실천적 전개 및 거시적 확장 과정을 중심으로 정리하면 그 내용은 담과 같다.

4-2-1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형성과 역사적 정착

한국 개혁주의 신학은 종교개혁의 5대 기치(Sola)를 신앙의 뼈대로 삼아, 교회의 보수적 정체성 수호와 학문적 체계화라는 두 단계를 거치며 성장했다. 안명준(2009)에 따르면, 1세대 신학자들은 장 칼뱅의 성경해석 방법론인 ‘간결함과 용이함’을 수용하여 성경 중심적 전통을 세우고, 칼뱅의 성령론을 한국교회 특유의 기도 운동과 융합시켰다. 다만 초기 신학이 교리 수호에 집중되면서 사회적 책임감을 경직되게 수용한 측면도 있다 평가받는다. 그리고 이러한 신학적 원형은 해방 이후 고신 신학의 정립을 통해 학문적 자생력을 갖추게 된다. 이근삼(1985)은 네덜란드 유학을 통해 신칼빈주의를 국내에 도입하며, 교회가 내부적 울타리를 깨고 정치·경제·문화 등 세상 전 영역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확장해야 한다는 사상적 토대를 마련하여 고신 신학을 학문적으로 체계화했다.

4-2-2 신학적 분화: 영미 웨스트민스터 vs 화란 신칼빈주의

한국 개혁주의 신학의 내부 구조를 이해하는 핵심 축은 영미 청교도 전통의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네덜란드 중심의 ‘화란 개혁주의’ 간의 상호작용이다. 박용규(1992)의 연구에 따르면 두 사조는 다음과 같은 뚜렷한 특징과 보완적 관계를 지닌다.

영미 웨스트민스터 신학은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중심으로 ‘언약 사상’을 체계화하여, 성도의 철저한 성화와 교회 내부의 순결 및 교리적 정통성을 수호하는 데 기여했다. 그리고 화란 개혁주의(신칼빈주의는: ‘일반 은총’과 ‘영역 주권’을 사상적 기둥으로 삼아, 세상 전 영역에서의 ‘문화 명령’과 그리스도인의 사회·문화적 변혁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위 기존 연구는 한국 개혁주의 신학이 이 두 전통의 우열을 가리는 소모적 논쟁에 머물지 않고,

웨스트민스터의 단단한 ‘교리적 뼈대’ 위에 화란 신칼빈주의의 ‘넓은 세계관적 안목’을 종합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왔음을 밝히고 있다.

4-2-3 미시적·실천적 전개와 거시적 지평의 확장

개혁주의 신학은 상아탑 안의 이론에 머물지 않고 실천신학 및 거시적 사회윤리의 영역으로 구체화되었다. 실천의 중요성으로 정정숙(1979)은 정통 교리가 올바른 실천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신학과 신앙의 일치’를 바탕으로 개혁주의 인간론에 기초한 성경적 상담학과 계약 신앙 중심의 가정·교회 교육을 역설하였다. 설교학 측면에서 박원철(2007)은 성경 전체의 흐름 속에서 그리스도의 대속과 은혜를 드러내는 ‘구속사적 설교’를 강조하며, 성령의 조명하심을 통해 지성적 교리가 영적 역동성을 갖추도록 유도했다. 또 거시적 확장으로, 양낙홍(2019)은 칼뱅의 제네바 사회 개혁을 추적하며 한국 교회의 윤리적 부재와 신앙의 사사회화를 비판하고, 사회적 공론장에서 정의를 실천하는 ‘공공신학’으로의 확장을 주장했다. 김재성(2004)은 장로교 대의 정치를 통한 민주주의 발전, 직업 소명설을 통한 건전한 시장 경제 토대 마련 등 개혁주의가 현대 서구 문명의 기틀을 형성한 원동력이었음을 문명사적으로 증명했다. 또 마지막으로 송영목(2026)은 이러한 신학적 논의들이 구체적인 ‘법과 제도, 개혁파 교회 질서’로 정착되어야 인위적인 교권주의와 무질서한 개교회주의를 방어할 수 있음을 명시했다.

즉 한국 개혁주의 신학 연구는 초기의 정통 교리 수호와 영미·화란 신학 사조의 균형 있는 흡수를 거쳐, 오늘날 개인의 영적 성장(상담·교육·설교)은 물론 사회적 공공성과 문명사적 가치, 그리고 올바른 교회 정치 질서 체계를 변호하는 통섭적인 신학 체계로 성숙해가고 있다.

V. 결론

본 연구는 일본 개신교사라는 큰 흐름속에서 정통 개혁주의 신학을 고수해 온 일본기독교 개교회(RCJ)의 형성과 신학적 특징에 대해 조사 검토를 하였다. 그리고 조사 결과, RCJ는 태평양 전쟁기 국가 권력에 따라 신학적 혼합주의와 배교의 우를 범했던 ‘일본기독교단’의 과거를 참회하며 만들어졌다. 이들은 ‘오직 성경’의 권위 위에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를 고백적 토대로 삼아 선명한 ‘고백교회’의 정체성을 정립하였다. 나아가 1976년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의 선언』을 통해 세속 권력의 영적 침해에 저항하는 정교분리와 저항권 신학의 정수를 보여주었으며, 화란 신칼빈주의의 일반 은총과 영역 주권 사상을 흡수하여 삶의 전

영역에서 그리스도의 왕권을 선포하는 문화 변혁주의적 세계관을 확립하였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제도나 신조를 우상화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향해 중단 없이 전진하며 갱신하는 ‘도상(途上)에 있는 교회’라는 역동적 원리를 구현함으로써, 비기독교적 일본 사회 속에서 타협 없는 정통 개혁주의 신학의 보루 역할을 감당해 왔음을 확인하였다.

둘째로, 본 연구는 한일 개혁주의 신학의 관련 및 시사점으로 한국과 일본의 개혁주의 신학은 역사적 궤적과 목회적 환경의 차이함 속에서도 사상적 원형을 공유하는 관련성을 지니고 있다. 한국 개혁주의가 영미 청교도 전통과 화란 신칼빈주의를 종합하며 대형 교단 중심의 폭발적인 외적 성장을 이룬 반면, 일본 RCJ는 척박한 복음의 토양 위에서 소수 정예의 고백적 순수성과 정밀한 학문적 체계화에 집중하였다. 이러한 비교는 오늘날 세속화와 사사화(Privatization), 윤리적 부재라는 위기에 직면한 한국 교회에 중대한 신학적 시사점을 던진다. RCJ가 보여준 국가주의에 대한 저항 역사와 『교회와 국가에 관한 신앙의 선언』은 한국 개혁주의가 공공신학(Public Theology)으로 지평을 확장하고, 세속 권력이나 자본주의적 가치관에 교회의 영적 주권을 내어주지 않도록 방어하는 이정표가 된다. 따라서 양국 개혁주의 신학의 미래 방향은 일방적인 수입이나 모방을 넘어, 상호 보완적 연대를 공고히 하는 데 있다. 한국 개혁주의의 영적 역동성과 실천적 에너지를 일본에 공유하는 동시에, 일본 개혁파의 철저한 죄책 고백 정신, 올바른 개혁파 교회 질서(정치 체제), 그리고 타협 없는 고백교회적 정체성을 한국 교회가 학습해야 한다. 전후 80년을 넘어 다원주의 시대를 마주한 동아시아적 맥락 속에서, 양국 교회는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상에 선포하는 변혁적 문화 명령을 공동으로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일본기독교개혁파교회(RCJ)의 『일본기독교 개혁파교회사: 도상에 있는 교회』를 중심으로 RCJ의 형성과 신학적 특징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로 인해 RCJ 내부의 구체적인 교단 사료나 현대 일본 개혁파 신학자들의 미시적인 학술 논쟁을 폭넓게 입증하지 못했다. 또한, 급변하는 21세기 현대 일본 사회의 청년층 이탈이나 다문화 사회로의 진입 등 최근의 실천신학적 당면 과제들을 계량적 데이터로 깊이 있게 다루지 못했다. 이는 향후 후속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과제이다.

참고문헌

- 김재성(2004). 개혁신학의 전망: 현대 칼빈주의, 그 독특성과 공헌들, 이레서원.
- 박용규 번역(1992). 웨스트민스터 신학과 화란 개혁주의, 도서출판 엠마오
- 사와 마사히코(1995). 일본 기독교사. 대한기독교서회.
- 서정민(2002). 한일기독교 관계사 연구, 대학기독교서회
- 송영목(2026) 편역. 교회의 품위와 질서: 개혁파 교회 질서, 고신 언론사
- 안명준(2009). 칼빈신학과 한국신학, 기쁜 날
- 양낙홍(2010). 개혁주의 사회윤리와 한국교회, 생명의 양식
- 이근삼(1985). 개혁주의 신학과 교회, 기독교문서선교회
- 이근삼전집 편찬위원회(2007), 개혁주의 신학과 한국교회, 생명의 양식
- 이상규(2007).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고신대학교 출판부
- 이선복(2023b). 일본의 신학교 및 신학교육에 관한 현황 분석과 함의 고찰, 로고스경영연구, 21(2). 57-82.
- 이선복·이선희 (2025). 하나님의 주권-전국대학교수선교연합회 40년의 회고와 비전. 동아기획.
- 이선복(2025). 일본의 기독교와 신학 리뷰: 도히 아키오 『일본 프로테스탄트 기독교사』를 중심으로, 로고스경영연구, 23(4). 83-125
- 이상규(2007). 『개혁주의란 무엇인가』, 고신대학교 출판부
- 임석운 (2024). 일본 그리스도 교회사 II: 일본 프로테스탄트 교회사. 고신언론사.
- 정성구 (2020).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킹덤복스.
- 정정숙(1979). 개혁주의 신학과 신앙, 기독교문서선교회
- 李象奎(2025). 日本教会は韓国教会にどのような影響を与えたのか: 神戸中央神学校朝鮮人留学生を中心に, 로고스경영연구, 23(3), 1-31.
- 李善馥(2024). 韓国における教会史研究方法の展開とその含意: 史観論と福音主義解釈を中心に, 로고스경영연구, 22(3). 43-67.
- (2025), 戦後80年を迎えられた日韓の反応と未来への課題: 福音主義教会の声明と協力を中心に, 로고스경영연구, 23(3), 63-92.
- 小野靜雄(1986). 日本プロテスタント教会史, 김산덕역(2012). 칼빈아카데미.
- 土肥昭夫(1987). 日本プロテスタント・キリスト教史, 김수진역(1991). 기독교문사.

中村敏(2024). 日本キリスト教宣教史 サビエル以前から今日まで, いのちのことは社.
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研究会(1983), 日本プロテスタント史の諸問題, 雄山閣.
日本基督改革派教会 歴史資料編纂委員会(1995), 日本基督改革派教会史: 途上にある
教会

山口陽一(2025). 日本の教会における罪責の自覚80年. 韓日教会史フォーラム発表文,
釜山 華明中央教会. 로고스경영연구, 23(3), 33-61.

John Calvin(1536). Institutio Christianae Religionis, 원광연 역(2018), 기독교 강요.
크리스천 다이제스트.

Williston Walker(1986).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손인설 역(2021). 기독교
회사. 서울: CH북스.

神戸改革派神学校 <https://www.krts.net/>

日本キリスト改革派教会 <http://www.rcj-net.org/>

日本キリスト教連合会 <https://jaoro.or.jp/cooperate/christo>

日本福音同盟(JEA, 2025.6.17) <https://jeanet.org/release/2025/06/2815>

日本福音キリスト教会連合(JECA) <https://jeca.jp>

논 찬 문		기독교학문연구회	
발표논문 제목	일본 기독교 개혁신교회의 형성과 신학	발표자	이선복
		논찬자 (소속)	이윤석 (서울기독교세계관연구원/원장)

“일본 기독교 개혁신교회의 형성과 신학”이란 제목의 논문을 논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이선복 교수님의 교회를 향한 사랑과 관심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본 논문은 일본 군국주의 시대를 살면서 교회를 통제하는 정권의 압박에 굴복하지 않고 개혁신교도 노선을 고수하려 노력한 일본의 한 교단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 논문의 장점, 강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본 논문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이웃나라 일본의 ‘일본 기독교 개혁신교회(RCJ)’의 역사를 발굴하여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소개해 줍니다. 다른 언어, 다른 문화를 가진 일본 교회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은 우리나라 상황에만 주로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자연스러운 점을 감안하면, 우리의 시야를 넓혀 주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최근 들어 ‘정교분리’라는 이슈가 우리 사회에서도 주목을 받고 있는데, 정교분리의 원칙이 무너졌던 일본 군국주의 시대에 일본 기독교 개혁신교회(RCJ)가 어떻게 개혁신 신앙을 지켰는지 역사적 고찰을 통해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게 해 줍니다.

셋째, 저자는 일본 개혁신교회의 신학적 특징을 5가지로 선정하여 제시합니다. “신학적 배교에 대한 참회와 ‘오직 성경’으로의 복귀”, “웨스트민스터 표준문서에 기초한 선명한 ‘고백교회’ 전통”, “그리스도의 유일한 주권과 저항권 신학”, “포괄적 세계관으로서의 칼뱅주의와 문화 변혁주의”, “토착화 신학과 무분별한 연합(에큐메니칼)에 대한 경계” 등 5가지 특징으로 일본 기독교 개혁신교회의 신학 노선을 잘 이해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음으로, 본 논문의 약점, 보완할 점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첫째, 본 논문은 교회사를 다루는 성격의 논문이나, 1차 자료의 요약 제시가 논문의 분량상 대부분을 차지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종합이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학술 논문이 갖는 연구 테마가 있고 그 테마를 밝혀내기 위해 근거가 되는 문헌과 관련자 진술을 찾아 제시하는 작업이 없습니다.

둘째, 일본 기독교 개혁신교회의 신학적 특징을 정리한 부분의 경우,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한 것인지에 대한 아무런 설명이 없어서 체계적이지 않습니다. 또한 각각의 특징에 대한 선언, 명제 제시, 진술은 있으나 학술 논문이 갖추어야 할 근거 제시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셋째, 마지막 부분에 포함된 “한국 개혁신주의 신학의 형성과 역사적 정착”은 본 논문의 취지를 생각할 때 전혀 관련이 없으므로 삭제하는 것이 더 좋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넷째, 본 논문이 좀 더 가치 있는 논문이 되려면 연구 주제를 좀 더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주된 명제와 풍부한 자료를 상호적으로 잘 엮어 제시하는 형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기독교 세계관에 관심 있는 학자들의 학회에서 주 전공인 경영학 분야를 뛰어넘는 교회사 관련 주제에까지 관심 가져 학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계신 저자의 열심히 감동적입니다. 참가자들 모두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함께 참여하는 신실한 신자로 함께 살아가시기를 희망합니다.

2026년 기독교학문연구회 춘계학술대회